

# 무용/동작치료에 참여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요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 나 영\*\*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 뿐 만이 아니라 아동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희숙과 박완주<sup>1)</sup>는 부적절한 교우관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이 아동기에도 발견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배천웅과 윤현숙<sup>2)</sup>은 초등학교생의 교우관계가 학업, 학교생활, 그리고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장연심과 조아미<sup>3)</sup>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은 부적절한 교우관계와 관계가 있는 점을 주목하며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sup>4)5)6)</sup>은 향상된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정의하는 개념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교수, nayungkim@swu.ac.kr

- 1) 배천웅, 윤현숙(2005),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13(1), pp.63-81.
- 2) 김희숙, 박완주(2008),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pp.80-87.
- 3) 장연심, 조아미(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1), pp.123-136.
- 4) 김연옥(2009),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5(2), pp.129-152.
- 5) 김현주(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상화간의 관계 - 교우관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매개변수로, 『청소년학연구』 9(1), pp.115-139.
- 6)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2015), 학습의 자기주도성은 학업성취 이외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복지연구』 17(1), pp.28-42.

이다.<sup>7)</sup> 자아존중감은 자긍심, 혹은 자신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주도적인 의사 결정력을 나타내며, 부정적 의사표현이나 거부감을 쉽게 극복한다.<sup>8)</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 형성의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장연심과 조아미<sup>9)</sup>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적인 상관관계는 특히 남학생에게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지연<sup>10)</sup>과 김현주<sup>11)</sup>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고되었지만, 성별과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선행연구들은 과도한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성장주도성(personal initiative)이다. 성장주도성은 과업을 성취하려는 도전적인 의지이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려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sup>12)</sup> 성장주도성은 자기의지와 유사하므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자기주도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sup>13)</sup> 그러므로 성장주도성은 조직 내에서 목적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영린과 이기학<sup>14)</sup>은 대학생들의 성장주도성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높은 성장주도성은 교우간의 갈등해결 및 협력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조대연<sup>15)</sup>은 중학생들의 학습에서 성장주도성이 높은 경우, 팀원들 간의 대인관계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장주도성은 자기 의지적 행동으로 교우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러한 협력의 경험은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주도성이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장주도성에 관한 연구는 학업능력이나 학습효과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예술치료연구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예술치료의 특징은 예술매체가 갖고 있는 비언어적 특성이 청소년기의 불안한 정서와 욕구를 보다 쉽게 표현하고 인식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16)</sup> 특히 무용/동작치료는 신체움직임을 매개로

7) S. Coopersmith(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pp.4-5.  
 8) 박지연(2008),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8-61.  
 9) 장연심, 조아미(2007), pp.123-136.  
 10) 박지연(2008), pp.58-61.  
 11) 김현주(2002), pp.115-139.  
 12) M. Frese, D. Fay, T. Hiburger, K. Leng, and A. Tag(1997), The concept of personal initiative: Operationaliz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wo German sampl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 pp.139-161.  
 13) Kathleen Cavallo(2006), Emotional Competence and Leadership Excellence at Johnson & Johnson,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2(1), pp.1-8.  
 14) 김영린, 이기학(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pp.2251-2270.  
 15) 조대연(2005),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팀내 대인관계, 『교육문제연구』 23, pp.223-242.  
 16) 김나영, 김선희, 송인령(2013),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예술치료프로그램 모델개발연구』(교육과학기술부), p.4.

자신의 감정, 욕구, 사고를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아인식을 구현할 수 있다.<sup>17)</sup> 자아는 신체자아의 형성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sup>18)</sup>는 점에서 무용/동작치료에서의 신체 표현을 통한 자기탐색과 자기표현의 경험은 치료과정의 기본이며, 자아개념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용/동작치료의 자기 표현적 측면은 선행연구들에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및 또래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sup>19)20)21)</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자기표현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의 경우 정적/부적의 양면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성장주도성의 경우 학업과 학습의 능력에 집중된 긍정적 연구보고가 주류이다. 아직 자아존중감과 성장주도성의 관계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개입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자기표현경험을 치료적 주요소로 적용하는 무용/동작치료를 통하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요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형성요인을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자기표현으로 제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형성요인을 강조한 무용/동작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무용/동작치료에서 적용된 개입효과(자아형성요인)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동작치료 참여기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형성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참여자선정, 검사문항설정, 그리고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사에서 후원하는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97명의 청소년들이었다. 참여자들은 경기도의 17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17) 앞의 책, p.5.

18) F. J. Levy(2012), 『무용동작치료: 치유의 예술, 개정2판』 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역)(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p.7.

19) 정성희(201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5-60.

20) 김춘우(2010), 무용/동작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9-55.

21) 노영주(2008), 무용/동작치료가 청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4-57.

램에 의뢰되었다. 남학생이 45명(46.4%)이었으며, 여학생은 52명(53.6%)이었다. 초등학생(4학년이상)은 29명(29.9%), 중학생은 55명(56.7%), 그리고 고등학생은 13명(13.4%)이었다.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은 총12회기로 구성 및 계획되었지만, 참여자들의 소속 학교 학사 일정 사정에 따라 평균 9.04회기(총 12회기 중)의 참여도를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참여율에 따라 3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참여율이 낮은 집단(5회기 이하)은 5명, 중간 정도의 집단(6~9회기)은 47명, 그리고 높은 집단(10~12회기)은 44명이었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마음톡톡 심리변화 진단도구<sup>22)</sup>이다. 마음톡톡 심리변화 진단도구는 8개의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자기표현’, 그리고 ‘교우관계’의 4가지 요인영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영역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그리고 교우관계에 각각 5문항씩 포함되었다. 자기표현 영역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Scale의 문항으로 신뢰도는 크롬바크알파 계수로 측정되었으며, 8개 영역이 .80이상이 신뢰계수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신뢰계수는 .858이었으며, 성장주도성이 .808, 자기표현은 .821, 의 신뢰계수를 나타냈다. 교우관계의 신뢰계수는 .847이었다.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8개 영역 모두 수용기준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 4.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2015년 3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20분씩 각 학교별 집단 치료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준비과정 - 주제다루기 - 마무리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학년에 따라 휴식시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무용/동작치료는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rikson은 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이며, 이시기에 경험되고 형성되는 대인관계에 주목하였다.<sup>23)</sup>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신체와 표현적 움직임으로 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경험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프로그램 후반에 진행되는 공연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수행, 협동, 지지와 같은 자기에 대한 성취와 만족을 경험하는 과정을 가졌다. 다음은 자아형성요소를 강조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 첫째, 신체와 움직임을 통하여 안전한 자원을 찾는다: 신뢰감, 주관적 안녕감 구축
- 둘째, 공동의 리듬적 움직임을 통하여 친밀감과 결속력을 경험한다: 집단내의 개방에 대한 불안 감소
- 셋째,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자신의 것과 통합한다: 수용과 인정의 경험, 타인지향적 개념
- 넷째, 타인과 함께 움직이고 공동의 춤을 안무한다: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
- 다섯째, 자신의 신체지각을 확장하고 감정으로 연결한다: 구심적 송환

22) 마음톡톡 심리변화 진단도구 개발 최종보고서(2015), GS칼텍스.

23) R. M. Liebert, and L. L. Liebert(1998), 『Liebert & Spiegler's Personality』, '성격심리학',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역)(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p.127.

##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사전과 사후 각각 97장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하여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사전검사에서 시행된 회귀분석과 사후에서 시행된 회귀분석 내용을 비교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사전과 사후에 따른 교우관계였으며, 독립변수는 자기표현, 성장주도성, 자아존중감, 학교급, 학년, 그리고 성별이었다. 셋째, 참여정도에 따른 집단(낮은, 중간, 높은)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집단별 교우관계이고 독립변수는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자기표현이었다.

## III. 결과

### 1.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와 자아형성 요인의 변화는 어떠한가?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전과 이후에 시행된 종속변인에 관한 점수 차이는 교우관계[t(96)=-2.151,  $p < .05$ ], 자아존중감[t(96)=-2.042,  $p < .05$ ], 그리고 자기표현[t(96)=-3.707,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장주도성은 사전-사후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1).

〈표 1〉 사전-사후검사에서 나타난 교우관계형성 요인들의 점수

		평 균	N	표준 편차	t(대응)	df	p
교우관계	사 전	18.020	97	4.153	-2.151*	96	.042
	사 후	18.725	97	4.031			
자아존중감	사 전	17.866	97	3.853	-2.042*	96	.044
	사 후	18.597	97	3.826			
성장주도성	사 전	19.113	97	3.777	-.300	96	.765
	사 후	19.206	97	3.735			
자기표현	사 전	12.866	97	3.223	-3.707**	96	.001
	사 후	14.051	97	3.324			

\*:  $p < .05$ , \*\*:  $p < .01$

### 2.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와 각 요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전에 조사된 결과에서는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자아존중감, 성장주

도성, 자기표현, 학년, 성별, 학교급)들은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7, 96)=9.746,  $p < .01$ ]. 이러한 영향력은 전체표본의 43.4%( $R^2 = .434$ )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은 자기표현( $B = .570$ ,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표 2). 그러나 성장주도성, 자아존중감, 학교급, 학년, 그리고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p > .05$ ). 교우관계와 자기표현의 상관관계는 .571( $p < .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전에 나타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자기표현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다른 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의 영향력(사전검사)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상 관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베타			0차	편	F(7,89)	$R^2$
(상 수)	1.089	3.397		.321	.749			9.746**	.434
성 별	-.392	.730	-.047	-.537	.593	-.040	-.057		
횟 수	.127	.183	.064	.695	.489	-.086	.074		
학교급	2.859	1.803	.441	1.586	.116	.021	.166		
학 년	-.604	.446	-.366	-1.356	.179	-.001	-.142		
성장주도성	.260	.123	.227	1.924	.104	.226	.196		
자기표현	.578	.131	.449	4.418**	.001	.571**	.424**		
자아존중감	.001	.133	.001	.009	.993	.169	.001		

\*\* :  $p < .01$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후에 조사된 결과에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7, 96)=11.541,  $p < .01$ ]. 이러한 영향력은 전체표본의 47.6%( $R^2 = .434$ )를 대표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B = -.305$ ,  $p < .01$ ), 성장주도성( $B = .258$ ,  $p < .01$ ), 그리고 자기표현( $B = .348$ ,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교우관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친 요인은 자기표현이었으며,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장주도성의 순서였다. 그러나 학교급, 학년, 그리고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p > .05$ ).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572( $p < .01$ )였으며, 교우관계와 성장주도성의 상관관계는 .496( $p < .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와 자기표현의 상관관계는 .555( $p < .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했다(표 3).

따라서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전에 나타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자기표현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후에는 자아존중감과 성장주도성의 영향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3〉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의 영향력(사후검사)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상관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베타			0차	편	F(7,89)	R <sup>2</sup>
(상 수)	5.078	2.923		1.737	.086			11.541**	.476
성 별	.670	.687	.083	.975	.332	.055	.103		
횃 수	.381	.169	.199	2.257*	.026	.099	.233		
학교급	-.324	1.660	-.051	-.195	.846	.107	-.021		
학 년	.179	.413	.111	.433	.666	.121	.046		
자아존중감	-.305	.133	-.289	-2.295*	.024	.572**	.236**		
성장주도성	.258	.107	.239	2.425*	.017	.496**	.249**		
자기표현	.348	.129	.287	2.698**	.008	.555**	.275**		

\*:  $p < .05$ , \*\*:  $p < .01$

### 3.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참여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요인과 교우관계의 관계는 어떠한가?

#### 가. 낮은 정도 참여자(5회기 이하)의 자아형성요인과 교우관계의 관계

참여율이 낮은 참여자들의 자아형성요인은 교우관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160,  $p > .05$ ]. 이와 같은 결과는 무용/동작치료 참여율이 낮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형성과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그리고 자기표현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나. 중간 정도 참여자(6~9회기)의 자아형성요인과 교우관계의 관계

참여율이 중간 정도의 참여자(6~9회기)들이 나타내는 자아형성요인은 교우관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43)=21.203,  $p > .01$ ]. 중간 정도 참여자들의 교우관계는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그리고 자기표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변수의 59.7%의 설명력( $R^2 = .597$ )을 나타냈다. 무용/동작치료 참여율이 중간 정도인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주도성( $B = .293$ ,  $p < .05$ )과 자기표현( $B = .486$ ,  $p < .05$ )이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62$ ,  $p > .05$ ). 자아존중감의 편상관계수는 .121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

〈표 4〉 중간정도 참여자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형성요인들의 영향력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상관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베타			0차	편	F(7,89)	R <sup>2</sup>
(상 수)	3.493	2.220		1.574	.123			21.20**	.597
자아존중감	.162	.203	.152	.799	.428	.697*	.121		
성장주도성	.293	.126	.275	2.326*	.025	.571*	.334*		
자기표현	.486	.183	.466	2.659*	.011	.716*	.376*		

\*:  $p < .05$

#### 다. 높은 정도 참여자(10회~12회)의 자아형성요인과 교우관계의 관계

참여율이 높은 참여자(10회~12회)들이 나타내는 자아형성요인은 교우관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43)=12.20,  $p > .01$ ]. 이는 참여율이 높은 참여자들의 교우관계는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그리고 자기표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변수의 47.8%의 설명력( $R^2 = .478$ )을 나타냈다. 무용/동작치료 참여율이 높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주도성( $B=.376$ ,  $p < .05$ )과 자기표현( $B=.427$ ,  $p < .05$ )이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291$ ,  $p > .05$ ). 자아존중감의 편상관 계수는 .274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5). 교우관계와 자기표현의 편상관관계( $r=.317$ ), 그리고 교우관계와 성장주도성이 나타난 편상관관계( $r=.555$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5$ ). <표 5>는 교우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높은 참여율 대상자들의 교우관계 형성에 미치는 자아형성요인의 영향력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상관		공선성계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베타			0차	편	허용 오차	F(7,89)	$R^2$
(상 수)	-.908	3.241		-.280	.781				12,20**	.478
자아존중감	.291	.161	.275	1.804	.079	.590*	.274	.564		
성장주도성	.376	.159	.328	2.365*	.023	.555*	.350*	.678		
자기표현	.427	.202	.274	2.111*	.041	.488*	.317*	.776		

\*:  $p < .05$ , \*\*:  $p < .01$

##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무용/동작치료 참여 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표현에서 향상을 나타냈다. 이는 무용/동작치료의 중재요소인 리듬적 무용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화석<sup>24)</sup>의 연구와 사회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재희<sup>25)</sup>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의미를 같이한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무용/동작치료 시간에 동일집단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시켰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측면은 집단 무용/동작치료의 구조가 자신들의 문제를 집단 내에서 공동의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어 안전한 자기 반영을 도울 수 있다는 이경희<sup>26)</sup>의 연구를 지지한다.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무용/동작치료의 참여가 교우관계와 자아형성요인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전의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교우관계는 자기표현만이 유의미한

24) 이화석(2013), 댄스활동참여 고등학생의 참여만족, 심리적 욕구,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무용예술학연구』 44(5), pp.113-135.

25)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pp.133-153.

26) 이경희(2012), 한국 탈춤의 무용/동작치료적 요소, 『무용예술학연구』 37, pp.27-44.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낮은 교우관계를 갖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 혹은 의사를 표현하는데 서툴거나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미숙한 자기표현은 교우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외되거나 외톨이로 남게 된다. Bukowski & Hoza<sup>27)</sup>는 청소년기의 외톨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참여기회 부족보다는 또래와의 미성숙한 언어표현과 돌출행동 때문에 많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나 성장주도성이 낮은 상태에서 자기표현만을 강하게 나타낸다면 교우들의 무시에 대하여 과격한 언행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게 된다.<sup>28)</sup> 강호옥과 박완재<sup>29)</sup>는 교우들의 무시에 대한 보상행동은 돌출행동, 폭력, 일탈행동 등과 같은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부적절한 자기표현이나, 환경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되는 자기표현으로 낮은 교우관계를 형성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손상된 자아존중감과 성장주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이론을 적용한 무용/동작치료를 실행하였다.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그리고 자기표현에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의 목표인 개인의 긍정적 자원을 인식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이로 비롯된 감정과 정서를 인식 및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자기표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인식하는 성장주도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한 자기표현이나 과격한 감정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해된다. Erikson은 자기신뢰감과 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자동)감을 강조하였고, 타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아이들은 튀는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이와 같은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이론을 적용한 무용/동작치료는 수용과 존중의 기본적 치료 환경에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다양한 신체와 움직임 표현의 자율적 모색이 성장주도성과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성장주도성이 부족한 자기표현은 교우모임에 소극적인 참여로 나타난다.<sup>31)</sup> 이는 교우들과 자신의 처지가 다르다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지적되어 왔다.<sup>32)</sup>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열등의식, 소극적인 참여, 소속감부족, 더 나아가 무단결석과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성장주도성 부족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을 주로 거론해왔다. 김종범<sup>33)</sup>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교우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또래들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가 다르다는 열등의식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또래모임에서 이탈되

27) W. M. Bukowski, and B. Hoza(1987),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Bernet, T. J. & Ladd, G. W. (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New York: Wiley.), pp.15-45.  
 28) 박승희, 이형초, 이정운(2007),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2), pp.17-36.  
 29) 강호옥, 박완재(2005), 학교부적응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가정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5), pp.5-24.  
 30) R. M. Liebert, and L. L. Liebert(1998), p.127.  
 31) 박지연(2008), pp.58-61.  
 32) 김서현 등(2015), pp.28-42.  
 33) 김종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p.26.

는 현상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과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용/동작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성장주도성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부적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주도성은 교우관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교우관계가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교우관계가 좋고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Olweus<sup>34)</sup>의 보고와 일치하며 학교부적응의 한 유형인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특징으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된다는 보고<sup>35)</sup>와 부분 일치한다. 즉, 과도한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이라는 단일적 목표 설정의 개입프로그램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조절하고 성장주도성을 강조하는 개입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무용/동작치료의 참여횟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횟수가 낮은 참여자들의 교우관계 형성은 자아형성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참여횟수가 6회기 이상인 참여자들의 교우관계는 성장주도성과 자기표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동작치료의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교우관계 형성에 부적기능(-)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정적기능(+)을 하는 성장주도성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동작치료 기간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서 단기개입보다 중장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김춘우<sup>36)</sup>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재정 및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심리지원 프로그램들을 단기화하려는 현실을 볼 때 중장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자아형성요인을 강조한 무용/동작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자아형성요인으로 제한 정의한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성장주도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형성요인을 강조한 무용/동작치료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을 향상시켰다.

둘째,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성별, 학년, 학교급, 성장주도성,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용/동작치료 참여 이후에 시행된 사후검사에서는 자아존중감, 성장주도성, 그리고 자기표현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34) D. Olweus(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pp.1171-1190.

35) 김나영, 김선희, 송인령(2013), p.11.

36) 김춘우(2010), p.55.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무용/동작치료의 참여횟수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참여율(5회기 이하)을 가진 참여자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자아형성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중간 정도의 참여율(6~9회기)을 가진 참여자들의 교우관계는 성장주도성과 자기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높은 참여율(10회~12회)을 가진 참여자들의 교우관계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동작치료에 참여하며, 교우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무용/동작치료로 향상될 수 있고, 무용/동작치료 참여로 성장주도성과 자기표현이 교우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를 시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야기되는 부적절한 교우관계를 개선하는데 무용/동작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6회기이상 참여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 자아형성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무용/동작치료의 중장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나영, 김선희, 송인령(2013).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예술치료프로그램 모델개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 Bukowski, W. M. and Hoza, B.(1987).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et and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evy, Fran J.(2012). 『무용동작치료: 치유의 예술, 개정2판』. 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Liebert, Robert M. and Liebert, Lynn Langenbach(1998). 성격심리학.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 정성희(201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춘우(2010). 무용/동작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주(2008). 무용/동작치료가 청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연(2008).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호욱, 박완재(2005). 학교부적응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가정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5): 5-24.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2015). 학습의 자기주도성은 학업성취 이외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복지연구』, 17(1): 28-42.
- 김연옥(2009).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5(2): 129-152.
- 김영린, 이기학(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2251-2270.
- 김종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현주(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상화간의 관계 - 교우관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매개변수로. 『청소년학연구』, 9(1): 115-139.
- 김희숙, 박완주(2008).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80-87.
- 박승희, 이형초, 이정운(2007).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2): 17-36.

- 배천용, 윤현숙(2005).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13(1): 63-81.
- 이경희(2012). 한국 탈춤의 무용/동작치료적 요소. 『무용예술학연구』, 37: 18-44.
- 이화석(2013). 댄스활동참여 고등학생의 참여만족, 심리적욕구,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무용예술학연구』, 44(5): 113-157.
- 장연심, 조아미(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23-136.
- 조대연(2005).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팀내 대인관계. 『교육문제연구』, 23: 223-242.
-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133-153.
- Cavallo, K.(2006). Emotional Competence and Leadership Excellence at Johnson & Johnson.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2(1): 1-8.
- Frese, M., Fay, D., Hiburger, T., Leng, K. and Tag, A.(1997). The concept of personal initiative: Operationaliz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wo German sampl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 139-161.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마음톡톡 심리변화 진단도구 개발 최종보고서(2015). GS칼텍스.

논문투고일 2015. 10. 15.  
 심사일 2015. 10. 20.  
 심사완료일 2015. 11. 4.

## Effect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Self-Concept Factor for Peer Relationship

- Focused Adolescents Who Were Participated in a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

**Kim, Nayung**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self-concept factors affected their peer relationship, after they participated in a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7 adolescents, who were referred to a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since they had school maladjusted issues.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of 12 sessions was consisted of four stages based on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 theory.

Three groups were delineated by the frequency of dance/movement therapy participat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low rate of participants showed a low relationship with the self-concept factors and peer-relationship. Meanwhile, the middle and high rate of participants demonstrat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ersonal initiation and the peer-relationship. However,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elf-esteem and the peer-relationship was found in those groups.

**Keywords:** School maladjustment adolescent(학교부적응 청소년), Peer relationship(교우관계), Dance/movement therapy(무용/동작치료), Self-concept factor(자아형성요소), Psychosocial development theory(심리사회발달이론)